

# 마태복음서 21장 44절과 $\mathfrak{P}^{104}$ (P. Oxy. 4404)

민경식\*

- I. 서언
- II.  $\mathfrak{P}^{104}$  (P. Oxy. 4404) 개요
- III.  $\mathfrak{P}^{104}$ 의 본문 분석
- IV.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대한 본문비평적 판단
- V.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대한 자료비평적 판단
- VI. 결론:  $\mathfrak{P}^{104}$ 가 본문 재구성에 끼치는 영향

## I. 서언

신약성서 파피루스 사본은, 그 연대가 매우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신약성서 본문 재구성에 기여한 바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와서 수많은 파피루스 사본들이 발견되었으나, 그것들은, 대문자 사본을 근거로 이미 재구성된 성서 본문을 변경하는 일에 주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의 초기 사본을 근거로 본문을 변경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신약성서의 대부분의 이문들(variants)은 이미 2세기에 만들어진 것들로서, 후기 사본에 나타나는 독법도 초기 사본에 나타나는 독법과 마찬가지로 그 기원에 있어서는 매우 초기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다수

\* 연세대학교 강사

- 1) 웨스트콧(B. F. Westcott)과 호트(F. J. A. Hort)는 이미 1881년, 파피루스 사본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단지 약 45개의 대문자 사본과 약 150개의 소문자 사본만을 사용하여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vol. I: Text (Cambridge / London: Macmillan, 1881))를 출판하였는데, 이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은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그리스어 신약성서(각주 2와 각주 3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과 매우 유사하다. 이와 관련하여 K. Aland / B. Aland,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pp.30-56, 특히 pp.36ff의 표와 설명을 참조하라.

의 초기 파피루스 사본들은 기존의 본문을 변경하는 데보다는 기존의 재구성된 본문을 확증하는 데 그 가치가 있었다. 즉, 20세기에 들어와 발견되고 출판된 초기 사본들은, 20세기 이후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특히 네스틀레-알란트 27판<sup>2)</sup>과 세계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성서 4판<sup>3)</sup>의 재구성된 본문이 매우 초기의 본문을 훌륭하게 복원했음을 증명해 주었다. 20세기에 출판된 많은 초기 사본들을 근거로 본문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사본들이 대다수 단편 사본이라는 것 때문인데, 오늘날까지도 단편 사본에 대한 본문비평적 연구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단편 사본을 본문비평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sup>4)</sup> 이 방법을 이용하여 단편 사본을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는 “엄격한 필사전승 방식”과 “순수한 본문”을 보이는 사본들을 중심으로 현재 신약성서의 본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P<sup>104</sup>이다. 본 소고는 이 파피루스 단편 사본이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의 본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P<sup>104</sup>(P. Oxy. 4404) 개요

20세기 말에 출판된 옥시링쿠스 파피루스들(P<sup>100</sup>-P<sup>115</sup>)을 포함하여, 모두 118개 파피루스 사본들 가운데 47개의 사본들이 이집트의 옥시링쿠스(Oxyrhynchus)에서 발견된 것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97년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4404번(P. Oxy. 4404)으로 출판된 P<sup>104</sup>이다.<sup>5)</sup> 지금은 옥스퍼드의 세클러(Sackler)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사본은 최근에 발견된 것이 아니다.

2) B. Aland / K. Aland / J. Karavidopoulos / C. M. Martini / B. M. Metzger (edd.), *Novum Testamentum Graece*, 27. revidierte Aufl., 8. korrigierter und um die Papyri 99-116 erweiterter Druc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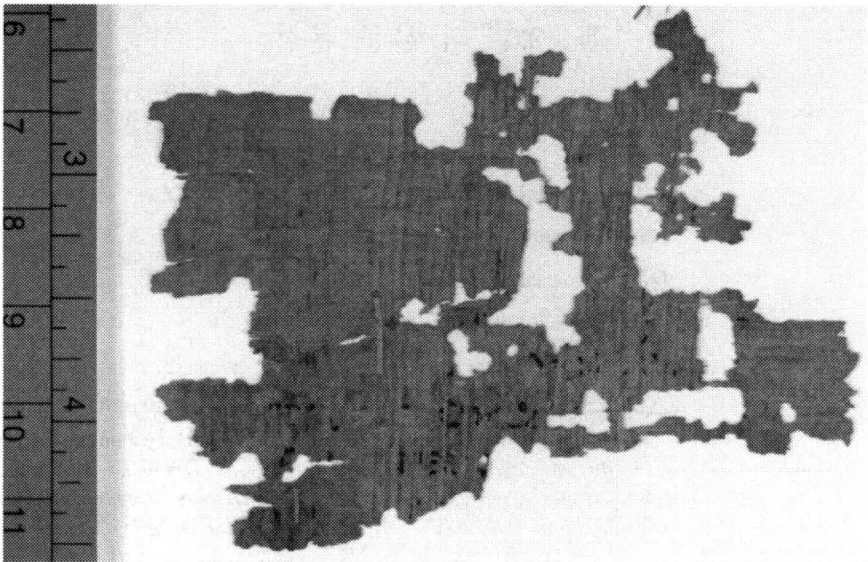
3) B. Aland / K. Aland / J. Karavidopoulos / C. M. Martini / B. M. Metzger (edd.), *Greek New Testament*, 4. revised ed., 2nd pr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4) 본 소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단편 사본의 본문비평적 연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직 출판되지 않은 본인의 소고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2005년 여름 이전에 「신약논단」에 기고될 예정)을 참조하라.

5) J. D. Thomas, *The Oxyrhynchus Papyri*, vol. LXIV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1997), pp.7-9 (no. 4404).



<그림 1>  $\Phi^{104}$  (P. Oxy. 4404) recto: 마 21:34-37



<그림 2>  $\Phi^{104}$  (P. Oxy. 4404) verso: 마 21:43, 45

영국의 그렌펠(Bernard P. Grenfell)과 헌트(Arthur S. Hunt)가 이미 1896-1897년과 1903-1907년의 두 번에 걸친 발굴 작업으로 수많은 파피루스 사본들이 발견하였는데, 그 당시 발견되었던 이 조각은 약 10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정체가 규명된 것이다.

이 사본은 세로가 약 5.5cm, 가로가 약 7cm 되는 매우 작은 단편사본이다. 코덱스의 일부로서 원래의 크기는 약 25cm × 14cm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을 재구성하면 한 페이지는 약 31행으로 구성되었고, 한 행에는 약 24개의 문자가 적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초기의 필체인 언셜장식체(또는 “Zierstil”)로 쓰인 이 사본(2세기<sup>6)</sup>)은 마태복음서 21장의 몇 절이 적혀있는 부분만 남아있다(마 21:34-37, 43, 45). 필체는 전문 문서 작성자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마 21:34-37의 일부가 적혀있는 앞면(recto)은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글자 해독에 어려움이 없으나, 마 21:43, 45가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뒷면(verso)은 읽기가 매우 어렵다. 16행의 한 문자(ε)를 제외하고는 모든 글자가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듯이 읽고 추측할 수 있는 문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Ⅲ. P<sup>104</sup>의 본문 분석

recto: Mt 21, 34-37

] δ[o]υλου[ς] αὐτου προς	34
[τους γεωργους] λαβειν τους καρ	
[πους αὐτου και] λαβουτες οι γεωρ	35
[γροι τους δου]λους αυτ[ου] ον μεν	

6) *Ibid.*, pp.7f를 참조하라(“late second century”). 또한 바바라 알란트(B. Aland)의 “Kriterien zur Beurteilung kleinerer Papyrusfragmente des Neuen Testaments,”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Festschrift J. Delobel*,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161, ed. A. Denaux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p.8을 참조하라(“2. Hlfte 2. Jahrhundert”). 반면 콤포트(P. W. Comfort)와 바렛(D. P. Barrett)은 P<sup>104</sup>의 연대를 2세기 초반으로 조금 더 일찍 잡는다(P. W. Comfort / D. P. Barrett (ed.), *The Text of the Earliest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New and Complete Transcriptions with Photographs*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 Inc., 2001), pp.643f).

5	[εδειραν] ον δε απεκτειναν ον	
	[δε ελιθοβ]ολησαν παλιν απε	36
	[στειλεν α]λλους δουλους πλειο	
	[νας των πρωτων και] εποιησαν	
	[αυτοις ωσαυτως υστερον δε] απε	37

verso: Mt 21,43. 45(?)

	네 행의 흔적 (10-13 행)	
14	] δοθησεται[α]ι	43
	[εθνει ποιουν]τι τ[ο]υς καρ[που]ς	
	[αυτης και ακου]σα[ν]τες ο[ι]	45 (?)
	한 행의 흔적 (17 행)	

<본문비평장치>

- 21:36 (6행) παλιν (txt)  $\mathfrak{P}^{104}$  *rell* ] και παλιν (add και)  $\aleph^*$  sy<sup>p</sup>; παλιν ουν (add ουν) D; παλιν δε (add δε) 579 d
- 21:44 (16행) και ο πεσων επι τον λιθον τουτου συνθλασθησεται· εφ ου δ αν πεση λικησει αυτον (v. 44) ante αυτης (본문은 격식괄호 안에 위치)  $\aleph$  B C L W Z (Q) 0102 f<sup>1.13</sup>  $\aleph$  lat sy<sup>c,p,h</sup> co ] -- (om v. 44)  $\mathfrak{P}^{104vid}$  D 33 it sy<sup>s</sup> Or Eus<sup>syf</sup>
- 21:45 (16행) και ακουσαντες (txt)  $\mathfrak{P}^{104vid}$  B C D W Q 0102 f<sup>1.13</sup>  $\aleph$  lat sy<sup>p,h</sup> mae ] ακουσαντες δε  $\aleph$  L Z 33. 892 pc aur sy<sup>c,c</sup> sa bo

$\mathfrak{P}^{104}$  조각에는 마 21:34-37, 43, 45의 본문이 쓰여 있다. 앞면(recto)에는 21:34-37의 일부가 적혀 있고, 뒷면(verso)에는 21:43 이후에 44절이 생략된 채로 45절이 연결되어 있다. 물론 뒷면의 해독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44절이 생략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뒷면(verso)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이 사본의 최초 편집자인 토마스(J. D. Thomas)의 의견대로 44절이 생략되어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sup>7)</sup> 14-16행에서 43절의 흔적을 읽을 수 있으며, 16행에 남아있는 흔

7) J. D. Thomas, *The Oxyrhynchus Papyri*, vol. LXIV, p.9. 그 외에도 P. W. Comfort / D. P. Barrett (ed.), *The Text of the Earliest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p.644와 P. M. Head, "Some Recently Published NT Papyri from Oxyrhynchus: An

적은 44절의 시작 부분(καὶ ὁ περὶ τὸν λίθον τοῦτον συνθλασθήσεται...)에 해당하지 않고, 45절의 시작 부분(καὶ ἀκούσαντες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뒷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자인 엡실론(ε)의 위치가 44절이 아닌 45절의 시작 부분에 들어맞으며(καὶ ἀκούσαντες의 ε), 또한 엡실론(ε) 앞뒤에 남아있는 흔적도 45절이 43절에 이어지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mathfrak{P}^{104}$ 의 필사가는 실수로 한 절을 생략한 것인가? 마 21:44 전체가 네스틀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본문에서 꺾쇠괄호 안에 놓여 있는데, 이것은 44절이 원본문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44절 전체를 본문에 수록하긴 하였는데, 그것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오히려 44절이 없는 것이 원독법일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mathfrak{P}^{104}$ 의 독법을 이문으로 취급하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마치고, 다음 장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위의 본문 단락(마 21:34-37, 43-45)에 해당하는 네스틀레-알란트 신약성서 27판의 본문비평장치에는 두 개의 이문 단락이 추가로 나타난다. 마 21:36(6행)에서 일부 사본들은 접속사를 추가하였다. 시내사본의 원독법( $\mathfrak{N}^s$ )과 페시타역본( $\text{sy}^p$ )은 접속사 καὶ를 추가하였으며, 베자사본(D)은 접속사 οὐν을, 그리고 한 소문자 사본(579)과 라틴어번역본(d)은 접속사 δὲ를 추가하였다. 36절에서 새로운 문장의 시작과 함께 접속사가 추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접속사가 삽입되면서 새로 시작되는 문장이 이전 문장(35절)과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mathfrak{P}^{104}$ 는 다소 어색한 감이 있어도 접속사를 추가하지 않고, 대본에 기록된 원독법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필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마 21:45(16행)에서도  $\mathfrak{P}^{104}$ 는 일련의 유력한 대문자 사본들(B C D W Q 0102) 뿐만 아니라 다수본문( $\mathfrak{M}$ )과도 함께 원독법을 증거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행의 공란(lacuna)에서 ἀκούσαντες 앞에 καὶ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 단편 사본에는 원본문이 불확실한 44절이 생략된 것 이외에는 이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mathfrak{P}^{104}$ 의 범위가 매우 작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본 전체에 이문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 사본의 필사가가 매우 좋은 대본을 매우 신중하게 필사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sup>8)</sup>

Overview and Preliminary Assessment," *Tyndale Bulletin* 51 (2000), pp.1-16, 특히 p.5, 9를 참조하라. P. M. Head의 논문은 약간 수정된 형태로 다음의 주소에서도 볼 수 있다(= <http://www.tyndale.cam.ac.uk/Tyndale/staff/Head/NTOxyPap.htm>).

8) 본 소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mathfrak{P}^{104}$ 를 다른 단편 사본들과 자세히 비교할 수

#### IV.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대한 본문비평적 판단

마 21:44이 원본문의 일부인지 후대의 추가인지는 불분명하다.  $\mathfrak{P}^{104}$ 가 출판되기 이전에 구성된 네스틀레-알란트 신약성서의 본문은 마 21:44를 꺾쇠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이 구절에 대한 본문비평적 결정을 유보하였다. 1881년의 웨스트콧(Westcott)/호트(Hort)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도 이 구절은 꺾쇠괄호 안에 놓여 있으며, 그 이전의 티센도르프(C. von Tischendorf)의 신약성서 8판에는 이 구절이 본문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편, 수용본문(Textus receptus) 전통을 따르는 대다수의 그리스어 신약성서에는 이 단락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초기의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로부터 현대의 로빈스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현대 번역본들도 이 구절을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다. 「킹제임스역」(KJV), 「새표준역개정판」(NRSV), 「뉴인터네셔널역」(NIV) 등의 영어 번역본들이나, 「루터역」(Lutherbibel), 「구테 낙호리히트」(Gute Nachricht) 등의 독일어 번역본들, 그리고 대부분의 불어역들, 또한 「개역개정판」, 「공동번역」, 「새번역」<sup>9)</sup> 등 우리말 번역본들이 모두 이 단락을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일부 번역본들은 네스틀레-알란트 27판과 같이 마 21:44를 꺾쇠괄호 안에 넣음으로써 이 단락이 원본문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하였는데, 우리말 「새번역」의 경우가 그렇하다. 또한 「공동번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구절을 (등근)괄호 안에 넣었다. 한편 「굿 뉴스 바이블」(Good News Bible)은 44절을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고, 일부 사본에 44절이 포함되어 있음을 각주에서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마 21:44를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은 현대어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영어 성서로는 「예루살렘 성서」(The Jerusalem Bible)와 「표준역개정판」(RSV), 불어로는 「예루살렘 성서」(La Bible de Jérusalem) 등이 있다. 이처럼 마 21:44의 진위 여부는 그리스어 신약성서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어 번역 성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구절은 원본문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후대의 첨가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네스틀레-알란트 27판과 세계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성

는 없다. 그러나  $\mathfrak{P}^{104}$ 의 두 배 조금 안되는  $\mathfrak{P}^{77}$ 에는 7개의 이문이 있으며, 그 가운데 5개가 단일독법(singular readings)이라는 것,  $\mathfrak{P}^{104}$ 보다 조금 큰  $\mathfrak{P}^{101}$ 에는 7개의 이문이 있고, 또한  $\mathfrak{P}^{104}$ 와 크기가 거의 같은  $\mathfrak{P}^{110}$ 에는 6개의 단일독법을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이문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mathfrak{P}^{104}$ 의 2/3 정도 크기인  $\mathfrak{P}^{103}$ 에는 5개의 이문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mathfrak{P}^{104}$ 가 훌륭한 본문을 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새번역」이라 함은 「표준새번역 개정판」을 가리킨다.

서 4판의 공동편집인들을 대표하여 메츠거는 마 21:44가 원본문에 속할 가능성과 후대의 추가일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이 구절을 본문에 포함시키되, 꺾쇠괄호 안에 넣었음을 밝히고 있다.<sup>10)</sup> 그러나 그는, 비록 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초기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구절이 후대에 몇몇 사본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그는 필사가가 시각적인 실수로 43절 마지막의 αὐτῆς에서 44절 마지막의 αὐτόν으로 뛰어넘어가면서 44절을 빠뜨렸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동형어두(Homoiarcton)로 인하여 생략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43절의 αὐτῆς와 44절의 αὐτόν이 각 문장의 시작을 이끄는 경우라면, 메츠거의 추측은 개연성이 높을 수 있다. 두 문장이 모두 αὐτ-(AYT-)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αὐτ-를 읽어야 했을 때 실수로 두 번째 αὐτ-를 읽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43절의 αὐτῆς와 44절의 αὐτόν이 문장의 끝에 위치해 있다. 즉 어두보다는 어미가 필사자에게 더 영향을 끼치는 위치이다. 오히려 실수로 인한 생략임을 주장하려면, 43절의 αὐτῆς와 44절의 αὐτόν보다는 44절과 45절의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 καί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즉 어떤 필사가가 대본의 43절 마지막 부분을 읽고, 다음에 καί가 오는 것을 머리 속에 기억한 채로 43절의 마지막 부분을 베껴쓴 후에, 다시 대본에 눈을 돌리면서, 44절의 καί가 아니라 45절의 καί를 읽게 됨으로써 44절 전체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적 판단기준은 이 설명을 지지한다.<sup>11)</sup>

반면, 마 21:44가 후대의 첨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12)</sup> 내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평가할 때는 이것이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 어떤 필사가가 누가복음서의 병행단락(눅 20:17-19)에서 마태복음서에는 없는 단락인 눅 20:18(πᾶς ὁ πεσῶν ἐπ' ἐκείνον τὸν λίθον συνθλασθήσεται· ἐφ' ᾧ δ' ἂν πέσῃ, λικμήσει αὐτόν)을 마태복음서의 이 자리(마 21:44)에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 문장은 후

10)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Second Edition (Stuttgart: Deutschen Bibelgesellschaft, 1994), p.47.

11) U. Luz,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Mt 18-25)*, EKK 1/3 (Zürich /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7), pp.217-218, 또한 p.217의 각주 11을 참조하라. 또한 K. Snodgrass, *The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 an inquiry into parable interpretation*, WUNT 27 (Tübingen: J. C. B. Mohr, 1983), pp.65-68을 참조하라.

12) W. Trilling, *Das wahre Israel: Studien zur Theologie des Matthäus- Evangeliums* 3., umgearbeitete Aufl., SANT 10 (München: Kösel, 1964), p.57; M. Rese, *Alttestamentliche Motive in der Christologie des Lukas*, StNT 1 (Gütersloh: Mohn, 1969), p.171 등을 참조하라.



대의 삽입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짧은 독법이 우선한다’(lectio brevior potior)는 본문비평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sup>13)</sup>

## V.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대한 자료비평적 판단

본문비평적인 방법으로는 위의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이 단락의 진위여부는 자료비평 방법의 도움을 받아 수 있다. 자료비평적인 방법의 견지에서 보면, 마태복음서 기자(마 21:42, 45-46)나 누가복음서 기자(눅 20:17, 19)는 마가의 단락(막 12:10-12)을 받아들였다. 이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기자는 막 12:10b-11의 시편인용(시 118:22-23) 이후에 이 시편에 대한 해석으로 마태 특수자료를 삽입하였다(마 21:43). 반면 누가기자는 막 12:10-11의 시편인용 가운데 전반부(막 12:10b = 시 118:22)만을 인용한 후에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누가 특수자료를 삽입하였다(눅 20:18). 이 누가의 특수자료는 원래 마태의 특수자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는데, 후대의 필사가가 눅 20:18의 내용을 마태 21:44의 위치에 삽입한 것이다(아래 표의 실선 화살표 참조). 그런데 눅 20:18의 내용은 시편인용문의 전반부 뒤에 바로 이어져 나와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다(점선 화살표 참조). 그러나 눅 20:18의 내용을 마 21:44의 위치에 삽입한 필사가는 이 누가 특수자료를 시편인용문 전반부 뒤에 바로 넣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이 누가 특수자료가 시편인용문의 맥을 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구절을 마태복음서에 첨가시킨 그 필사가는 이 구절을 현재의 위치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13) 물론 이 원칙(lectio brevior potior)이 본문비평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파피루스 장편 사본(P<sup>45</sup>, P<sup>46</sup>, P<sup>47</sup>, P<sup>66</sup>, P<sup>72</sup>, P<sup>75</sup>)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초기 사본들은 삽입(addition)보다는 생략(omission)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서 초기 사본에는 ‘긴 독법이 우선한다’(lectio longior potior)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J. R. Royse,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Th. D. Dissertation (Berkeley, 1981), pp.593-615를 참조하라. 그러나 이들 초기 사본에서 주로 생략된 것은 긴 문장이 아니라, 짧은 단어들이다. 그것도 의도적인 생략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탈락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병행구절의 영향으로 긴 문장이 삽입되는 것은 본문이 점점 자라난다는 본문비평의 고전적 원칙에 부합한다.

<표 1> 공관복음서의 평행단락 비교

마 21:42-46	막 12:10-12	눅 20:17-19
42 λέγει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οὐδέποτε ἀνέγνωτε ἐν ταῖς γραφαῖς·	10 οὐδέ τὴν γραφὴν ταύτην ἀνέγνωτε·	17 ὁ δὲ ἐμβλέψας αὐτοῖς εἶπεν· τί οὖν ἐστὶν τὸ γεγραμμένον τοῦτο·
λίθον ὃν ἀπεδοκίμασαν οἱ οἰκοδομοῦντες, οὗτος ἐγενήθη εἰς κεφαλὴν γωνίας·	λίθον ὃν ἀπεδοκίμασαν οἱ οἰκοδομοῦντες, οὗτος ἐγενήθη εἰς κεφαλὴν γωνίας·	λίθον ὃν ἀπεδοκίμασαν οἱ οἰκοδομοῦντες, οὗτος ἐγενήθη εἰς κεφαλὴν γωνίας·
παρὰ κυρίου ἐγένετο αὕτη· καὶ ἔστιν θαυμαστὴ ἐν ὀφθαλμοῖς ἡμῶν·	11 παρὰ κυρίου ἐγένετο αὕτη καὶ ἔστιν θαυμαστὴ ἐν ὀφθαλμοῖς ἡμῶν·	
43 διὰ τοῦτο λέγω ὑμῖν ὅτι ἀρθήσεται ἀφ' ὑμ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 καὶ δοθήσεται ἔθνει ποιοῦντι τοὺς καρποὺς αὐτῆς		
44 [καὶ ὁ πεσὼν ἐπὶ τὸν λίθον τοῦτον συνθλασθήσεται· ἐφ' ὃν δ' ἂν πέσῃ λικμήσει αὐτόν]		18 πᾶς ὁ πεσὼν ἐπ' ἐκεῖνον τὸν λίθον συνθλασθήσεται· ἐφ' ὃν δ' ἂν πέσῃ, λικμήσει αὐτόν·
45 καὶ ἀκούσαντες οἱ ἄ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τὰς παραβολὰς αὐτοῦ ἔγνωσαν ὅτι περὶ αὐτῶν λέγει· 46 καὶ ζητοῦντες αὐτὸν κρατῆσαι  ἐφοβήθησαν τοὺς ὄχλους, ἐπεὶ εἰς προφήτην αὐτὸν εἶχον·  cf. v. 45	cf. v. 12b  12 καὶ ἐζήτουν αὐτὸν κρατῆσαι,  καὶ ἐφοβήθησαν τὸν ὄχλον,  ἔγνωσαν γὰρ ὅτι πρὸς αὐτοὺς τὴν παραβολὴν εἶπεν· καὶ ἀφέντες αὐτὸν ἀπήλθον·	cf. v. 19b  19 Καὶ ἐζήτησαν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καὶ οἱ ἄρχιερεῖς ἐπιβαλεῖν ἐπ' αὐτὸν τὰς χεῖρας ἐν αὐτῇ τῇ ὥρᾳ, καὶ ἐφοβήθησαν τὸν λαόν, ἔγνωσαν γὰρ ὅτι πρὸς αὐτοὺς εἶπεν τὴν παραβολὴν ταύτην·

## VI. 결론: $\wp^{104}$ 가 본문 재구성에 끼치는 영향

본문비평적으로 판단할 때, 마 21:44가 원본문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대의 삽입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외적 판단기준에 따르면 마 21:44는 원본문에 속할 개연성이 높으며( $\aleph$  B C L W Z (Q) 0102  $f^{1,13}$   $\aleph$  lat sy<sup>c.p.h</sup> co), 반대로 내적 판단기준에 따르면 이 구절은 후대의 삽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구절은 네스틀레-알란트 27판에서 꺾쇠괄호 안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1979년 재구성된 네스틀레-알란트 26판의 본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네스틀레-알란트 27판의 본문은  $\wp^{104}$ 가 알려지기 이전에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이 구절이 원독법이 아니라는 것에 중요한 외적 증거가 하나 늘어난 셈이다.  $\wp^{104}$  없이 맞추어졌던 균형의 추가 이 초기 단편 사본으로 인하여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셈이다. 물론 하나의 초기 사본을 근거로 본문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단지 하나의 초기 사본이 아니라, 본문비평적인 견지에서 매우 훌륭한 본문을 갖고 있는 사본이 논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wp^{104}$ 에 대한 본문비평적 평가에서 들어난 것처럼, 이 사본은 “엄격한 필사전승 방식”과 “순수한 본문”의 범주에 속한다. 즉 이 사본의 필사가는 매우 우수한 대본의 본문을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필사하였다. 그러므로  $\wp^{104}$ 는 원독법을 보존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wp^{104}$ 의 독법에 따라 마 21:44를 후대의 삽입으로 취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네스틀레-알란트 신약성서 27판에서 마 21:44를 (비록 꺾쇠괄호 안에 놓았지만) 본문에 넣을 수 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구절에 대한 외적 증거 때문이다. 즉 절 전체가 생략된 초기 사본 또는 유력한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D와 33 그리고 몇 안 되는 번역본의 지지만을 얻는 독법(마 21:44의 생략)을 본문으로 채택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 주요 원인이었는데, 이제 마 21:44가 없는 우수한 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 마 21:44를 본문에서 제외시킬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이후에 출판되는 또는 개정되는 그리스어 신약성서 비평본에서는 기존의 본문이 변경되리라 기대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마 21:44가 많은 유력한 대문자 사본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그것이 원본문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삽입이 매우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Aland, B., "Kriterien zur Beurteilung kleinerer Papyrusfragmente des Neuen Testaments,"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and Exegesis: Festschrift J. Delobel*,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161, ed. A. Denaux,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2, pp.1-13.
- Aland, B. / Aland, K., *Der Text des Neuen Testaments: Einführung in die wissenschaftlichen Ausgaben und in Theorie wie Praxis der modernen Textkritik*, 2.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89.
- Aland, B. / Aland, K. / Karavidopoulos, J. / Martini, C. M. / Metzger, B. M. (edd.), *Novum Testamentum Graece*, 27. revidierte Aufl., 8. korrigierter und um die Papyri 99-116 erweiterter Druck,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_\_\_\_\_, *Greek New Testament*, 4. revised ed., 2nd print,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3.
- Comfort, P. W. / Barrett, D. P. (ed.), *The Text of the Earliest New Testament Greek Manuscripts: New and Complete Transcriptions with Photographs*, Illinois: Tyndale House Publisher, Inc., 2001.
- Head, P. M., "Some Recently Published NT Papyri from Oxyrhynchus: An Overview and Preliminary Assessment," *Tyndale Bulletin* 51 (2000), pp.1-16.  
(= <http://www.tyndale.cam.ac.uk/Tyndale/staff/Head/NTOxyPap.htm>)
- Luz, U., *Das Evangelium nach Matthäus (Mt 18-25)*, EKK I/3, Zürich /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97.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Second Edition, Stuttgart: Deutschen Bibelgesellschaft, 1994.
- Rese, M., *Alttestamentliche Motive in der Christologie des Lukas*, StNT 1, Gütersloh: Mohn, 1969.

- Royse, J. R., *Scribal Habits in Early Greek New Testament Papyri*, Th. D. Dissertation, Berkeley, 1981.
- Snodgrass, K., *The Parable of the Wicked Tenants: an inquiry into parable interpretation*, WUNT 27 Tübingen: J. C. B. Mohr, 1983.
- Thomas, J. D., *The Oxyrhynchus Papyri*, vol. LXIV, London: Egypt Exploration Society, 1997, pp.7-9 (no. 4404).
- Tischendorf, C. von, *Editio Octava Critica Maior*, Leibzig: Giesecke & Devrient, 1869 -1972.
- Trilling, W., *Das wahre Israel: Studien zur Theologie des Matthäus-Evangeliums* 3., umgearbeitete Aufl., SANT 10, München: Kösel, 1964.
- Westcott, B. F. / Hort, F. J. A.,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 vol. 1: Text, Cambridge / London: Macmillian, 1881.
- 민경식, 「초기 신약성서 단편사본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미출판, 2005년 여름 이전에 『신약논단』에 기고될 예정).

<Abstract>

## Mt 21:44 and P<sup>104</sup>

Min, Kyoung-shi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monstrate that Mt 21:44 is a secondary accretion to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The whole verse of Mt 21:44 is retained in the text of NA<sup>27</sup>, but enclosed within square brackets. This indicates that the authenticity of the whole verse is disputed in a great degree.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acceptance of Mt 21:44 in the text is probably the strong support of the manuscripts (⌚ B C L W Z (Θ) 0102 f<sup>1,13</sup>...): external criterions.

From the view-point of the source criticism (viz. Literarkritik) Mt 21:44 is very likely an interpolation from Lk 20:18 which can be regarded as Luke's "Sondergut." A later copyist seems to have adopted this phrase from Luke 20:18 and inserted it in Mt 21:44. But this explanation had a too weak support of Manuscripts to be regarded as original (D 33...): internal criterions.

8 years ago (1997) a fragmentary papyrus manuscript is published which contains Mt 21:43, 45 (without 44) in his back side of the leaf (verso): P. Oxy. 4404 (= P<sup>104</sup>). According to the text-critical analysis this papyrus fragment belongs to the strict "Überlieferungsweise"(= the manner of copying tradition) and to the strict "Textqualität"(= the quality of the text). That means that the copyist copied his excellent "Vorlage" very carefully, and scarcely made errors. Accordingly the omission of the whole verse obtained a strong witness (104).

Now we can regard the verse as a secondary addition, not only on the basis of internal criterions, but also on the basis of external criterions. Mt 21:44 is therefore not to be a part of the "original" text.

Key words: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Fragmentary) Manuscript, P<sup>104</sup>, Methodology, Matt 21.44.